‘부감’과 ‘시점’ 미학 山景에 더해져

이종송 초대전 ‘부감시점(俯瞰時點)’

공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12월 18일까지

‘Mountain in Motion’ 시리즈 30여 점
흙바른 캔버스 천연 안료 흙벽화 기법
동 · 서양, 전통 · 현대 등 경계 허물어
6년 동안 전국 고찰 돌며 사찰 스케치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공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3층에서 12월 18일까지 43번째 개인전을 여는 이종송(건국대 미대 교수) 화가가 이번에 전시할 그림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Mountain in Motion(움직이는 산), 화가 이종송의 30년 테마이다. 그가 또 한 번, 자신의 산으로 초대한다. 이종송 화가는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3층에서 초대전 ‘부감시점(俯瞰時點)’을 개최한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그려왔던 ‘산’에 ‘부감(俯瞰)’이라는 ‘시점(時點)’의 미학을 더했다. 오대산 비로봉에서 현실과 상상의 힘을 더해 바라본 설악산 대청봉 등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흙벽화기법에 천연안료’

이종송의 ‘산’은 많은 것들을 품고 있다. 많은 것들이 들어와 쌓였다. 이 작가는 30년 동안 ‘이종송의 산’으로 많은 것들을 불러들였다. 그렇게 이종송의 산으로 들어와 쌓인 유무형의 미학적 모색들은 그의 그림의 출발점인 벽화의 체계처럼 걷어낼 때 드러날 수 있는 쌓임의 미학을 전개하고 있다.

“저는 재료적인 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재료인 종이나 캔버스 말고 내 작업을 특화시킬 수 있는 형식을 찾던 중에 가장 오래된 회화기법이 무얼까 생각했죠. 그것이 서양의 프레스코, 그리고 동양의 사찰 벽화를 포함한 고대 벽화 기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종송 그림의 시작은 ‘벽화’였다. 정확히 말하면 ‘흙벽화 기법’에서 시작됐다. 이 작가의 작품 대부분은 ‘흙벽화기법에 천연안료’이다. 그의 선과 점, 색채, 생각과 움직임은 흙을 바른 캔버스에서 완성된다. 지금은 원형에서 진화하고 변화된 자신만의 독특한 벽화기법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그의 그림의 뼈대가 된 것은 사찰의 벽화다. 당연히 이 작가는 사찰의 벽화와 가까워야 했고, 사찰과 가까워졌다. 이종송의 ‘흙벽화기법에 천연안료’는 무위사의 금당벽화를 비롯한 우리 고찰의 벽화에서 배운 것이다.

이 작가는 2000년 대 중반부터 6년 동안 시인 유명종, 사진가 전성영과 함께 전국 사찰을 여행했다. 6년 동안의 기록은 〈남자의 여행〉으로 출간됐고,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찰벽화 관련 작업을 해왔던 이 작가는 흙벽화기법을 이용한 ‘움직이는 산’ 시리즈를 선보였다. 영주 부석사, 강진 무위사, 여수 신륵사 등 주관적 해석을 통해 다양한 시점으로 대상을 바라보며 자연과 사람, 동물들을 함께 담아낸 작품 20여 점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Mountain in Motion

그동안 이종송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사실과 추상 등 서로 마주보는 요소들의 경계를 허물면서 보이는 풍경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풍경을 대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주관적 경험에 의한 풍경을 그려왔다.

Mountain in Motion, 가장 먼저 그의 산을 움직인 것은 바람이다. 움직이는 산의 시점에 의한 동적인 표현의 산 그림에 바람이라는 요소가 추가되어 다른 느낌의 풍경이 그려졌다.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오름의 풀들과 나무들, 바람에 의한 동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다. 이 작가는 그것을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본다. 이종송의 산은 이러한 에너지가 흐르는 산이다. 그렇게 바람이 흔들어놓은 산은 춤을 추기 시작한다. 산의 뼈대와 살은 숲이다. 거시적 구성의 거대산수에서 숲의 나무로 집중되어 나무가 춤을 추는 듯한 형태가 등장한다. 나무가 스스로 움직일 리 없다. 나무를 흔들고 숲을 움직인 것은 바람이다.

“언젠가 저녁 무렵에 오대산 상원사에 갔는데, 스님께서 저녁예불 타종을 시작했어요. 타종하는 그 순간에 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고,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산을 흔들었어요. 산이 움직였어요.”

이종송의 산에는 ‘소리’가 있다. 그 소리는 ‘음악’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종송의 그림(산)에는 음악이 들어 있다. 절정은 2019년의 ‘Mountain in Motion-Concerto’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을 통한 청각적 경험이 그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산으로 들어온 바다의 블루

이종송의 그림은 미술적 규칙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종송의 그림에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다. 동양화? 서양화? 전통? 현대? 추상? 사실? 등 그의 그림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디에나 속한다. 이를 위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점과 선적인 표현을 이용한다. 공간과 시점도 자유롭다. 필요에 따라서 ‘투시’도 자유롭게 적용한다. 오직 대상의 본질에 집중한다. 이 작가는 현장에서 대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감동’을 꼽는다. 작가가 풍경을 보고 느끼는 감동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관람자와 소통한다. 바람을 느끼고 공간을 느낀다. 극도의 긴장감과 느슨함이 풍경에 담긴다. 이런 요소들을 흙이라는 자연 위에 다시 풀어놓는 것이다.

이 작가는 최근에 동일 계열의 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천연안료의 색상과 풍경이 주는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고 있다. 단순히 색의 사용이 아닌 깊고 명상적인 색의 ‘적용’이다. 일반적인 색의 의미는 이 작가에게 의미가 없다. 대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같은 즉각적 색상을 깊이 있게 사용하여 풍경의 추상적 단순화 과정에 적용한다. 천연염료인 쪽의 깊고 푸른색을 사용해 하늘과 우주, 바다를 포함할 수 있는 깊은 느낌을 준다. 이 작가에게 푸른색은 초월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깊은 심연의 ‘색’이다. 이종송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산 그림은 대부분 ‘블루’다. 산 전체가 블루다. 다양한 블루가 숲이 되고 숲을 흐르는 바람이 되고, 움직이는 산의 빛깔이 된다. 그런 이종송의 블루는 바다에서 온 블루다. 바다를 산으로 불러들이면 어떨까. 이종송은 어느 날 바다를 산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이종송의 산은 바다의 블루로 완성됐다. 경계 없는 이종송의 그림이 또 한 번 경계를 허문다. 아니, 경계의 문제가 개념과 인식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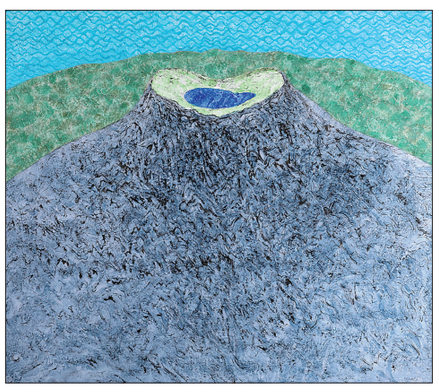
“제가 앞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은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개인전 중간에도 떠오르는 작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립니다. 그 그림들을 근간으로 또 변화하는 작업을 시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 자신을 비워내려고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이번 전시는 43번째 개인전이다. 숫자의 의미가 무색해진 지 오래다. 그런 그는 아직도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있다. 바다를 산으로 불러왔던 것처럼 앞으로 그가 그의 산에 무엇을 불러들일지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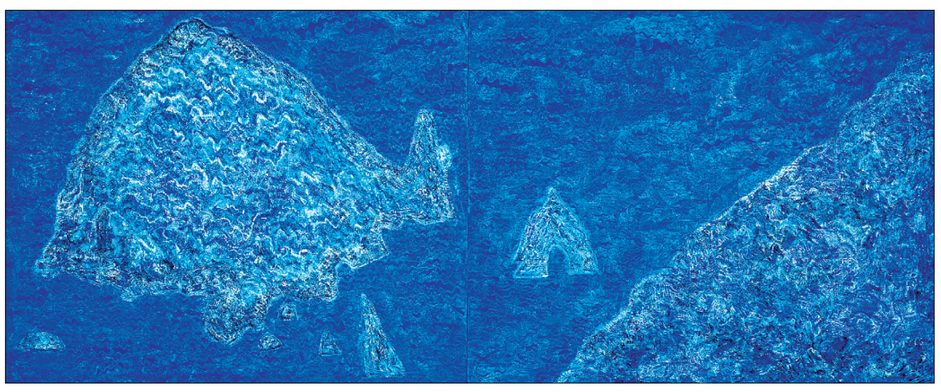
이종송 작가는…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0, 1991, 1992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및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천연안료와 벽화기법에 관한 논문이 다수 있다. 차마고도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박수근미술관, 캐나다 한국대사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초 · 중 · 고 미술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되어있다. 국내외서 42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200여 회의 국내외 단체전 및 초대전에 출품했다.



Mountain in Motion 116.5x 91cm 2021



Mountain in Motion 117x91cm 2021



Mountain in Motion-Concerto 320x130cm 흙벽화기법에 천연안료 2020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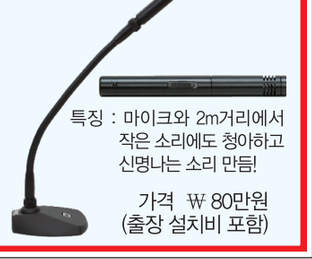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